

미국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현황

신 유 림*

1. 개요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상에서 각종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의료 업무를 보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의 의료비 지원이 미흡한 탓에,¹⁾ 의료정보화에 있어 가장 앞서 있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건강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활용과 의료정보화가 미진했던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그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의 최근 보고서인 「The Social Life of Health information」(2009년 6월 11일)의 발표결과를 활용하기로 한다.³⁾ 다음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연구원, (02)570-4268, yurim@kisdi.re.kr

1) 김진호(2008. 8. 15)

2) 박형수(2009. 4. 23)

3) 이 자료의 설문조사는 프린스턴 서베이 리서치에서 실시되었으며,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기간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유효표본은 2,253명이고, 이 중 인터넷 이용자는 1,650명이다.

2.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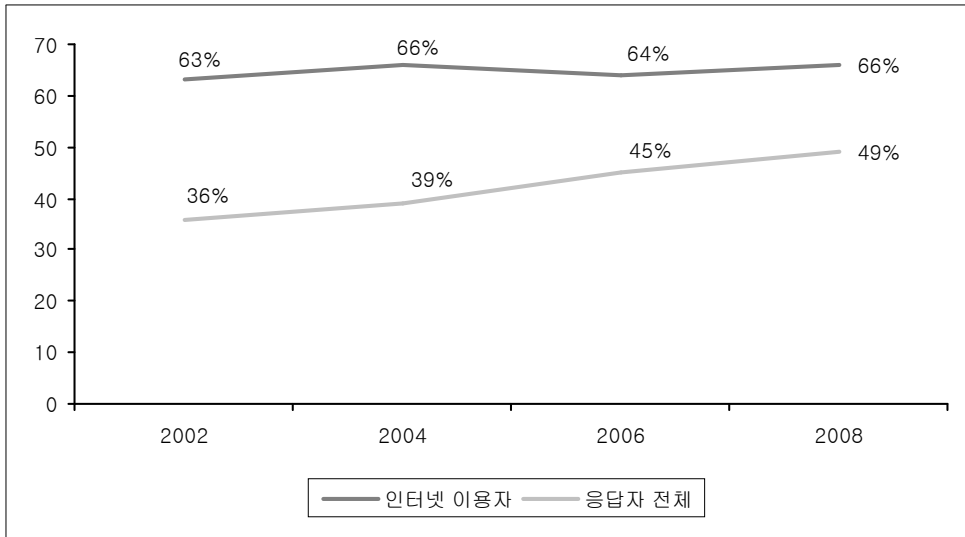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의 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온라인 상에서 건강 정보를 찾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46%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터넷이 보급된 가구는 5%에 불과했다. 그리고 성인의 25%만이 온라인 건강 정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74%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터넷 가구 보급률은 57%로 증가했다. 또한 성인의 61%가 온라인 건강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표 1〉 미국 e-patient의 인터넷 건강정보 검색 분야

	검색 정보	비율(%)
1	질병 및 의학적 문제	66
2	의학적 치료법 및 절차	55
3	운동 및 피트니스	52
4	의사 및 건강전문가	47
5	처방전 및 약물	45
6	병원 및 의료시설	38
7	건강보험	37
8	대안 치료 및 약물	35
9	체중 유지 및 감소	33
10	정신과 관련 주제	28
11	기타	26
12	실험적 치료 및 약물	20
13	해외여행시 건강 유지법	12

4) 최근에는 온라인 건강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을 일컬어 e-patient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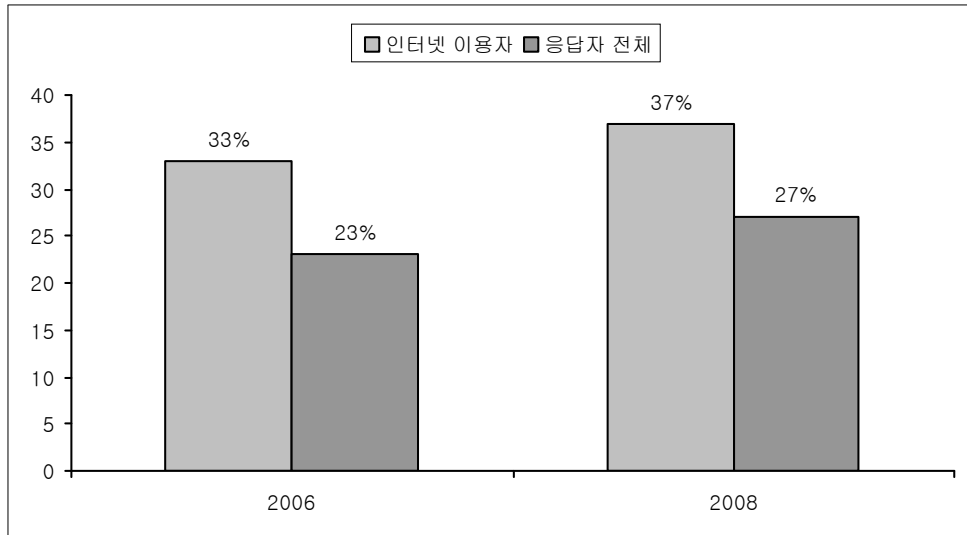
[그림 1] 질병 및 의학적 문제 인터넷 정보 검색 증가 추이



[그림 2] 운동 및 피트니스 인터넷 정보 검색 증가 추이



[그림 3] 건강보험 인터넷 정보 검색 증가 추이



이번에는 e-patient들의 대표적인 분야의 이용 증가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건강 정보 활용 정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e-patient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다고 응답한 질병에 관한 건강 정보 활용의 변화 추이는 2002년 63%에서 2008년 66%로 약간의 증가폭을 보였다. 인터넷 사용자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성인으로 대상을 넓혔을 경우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운동 및 피트니스 정보 활용의 증가 추이는 2002년 36%에서 2008년 52%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 유지나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e-patient들의 건강보험 활용은 2006년 33%에서 2008년 37%로 증가했다.

3. 결 어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검색하는 건강 관련 정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정보화 산업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의료정보화 선진국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의료정보화는 상기 보고서에서 조사한 내용과 같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의료 업무 처리, 네트워킹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현대 사회가 성인병 증가, 고령화, 건강보험 재정 우려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IT와 의료의 융합은 전세계적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IT강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인터넷 건강 정보 활용이나 의료정보화 정도는 낮은 편이다.⁵⁾ 이는 의료업계의 보수성과 IT에 대한 이해 부족이 1차적인 원인이겠지만, 인터넷 건강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미국처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의료업계에서는 기존의 의료법 체계로는 원격의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특례법 형태로 입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⁶⁾ 이제는 사람들의 온라인 건강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포털을 만들고, IT업계/의료업계/정부 이 세 가지 축이 협력과 지원을 하여 의료정보화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참고자료

- 강성은(2009. 6. 25), “u헬스 최대 걸림돌 ‘원격진료허용’ 가닥”, 《아이뉴스 24》
 김진호(2008. 8. 15),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그늘 ‘무보험 4,700만명’...빈자엔 ‘의

5) 박형수(2009. 4. 23)

6) 강성은(2009. 6. 25)

료지옥”, 《경향신문》

박형수(2009. 4. 23), “U-헬스케어, 성장성은 유망한데”, 《아시아경제》

Korean healthlog(<http://healthlog.kr/>)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2009), “The Social life of Health Information”,

2009. 6. 11

(http://www.pewinternet.org/~media/Files/Reports/2009/PIP_Health_2009.pdf)